

# 이념문화 배설문화 그리고 청년문화

## ‘개그책’ 베스트셀러화현상의 사회심리학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무렵,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작가가 이승훈교수였다. 그는 대학교수라는 근엄한 직업과는 다르게 「00구명과 뱀의 대화」 「서울의 밤」이라는 체형적 성격의 에세이를 거꾸 발표하면서 추악한 밤거리의 서울 모습을 고발하거나 욕정에 겨운 남녀들의 성문란 풍속을 대담하고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서슬 퍼런 유신정권 아래서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있다면 성적 표현의 자유랄까, 비정치적 비시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는지 당시의 표현에 대한 자유중 외설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했다고 기억된다.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언중 금기시되고 하물며 글로써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란 감옥을 각오한 결심을 요구하던 때여서 우회적이거나 풍자적인 소설이 유행하던 무렵이기도 했다.

이런 문화풍토의 반영인지, 할 말 못하고 살 바에야 응답패설이나 하고 야유적인 웃음이나 피식피식 지우며 자조적으로 사는 게 지식인 문인들의 어쩔 수 없는 행태라고 미화하는 풍조도 생겨났다. 정치적 억압과 표현에 대한 억눌림이 작거나 독자 양쪽에 함께 욕구불만으로 쌓이면서 이를 해소하고 배설해버리는 방편으로 생겨난 게 이른바 배설문학이라는 것이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한다.

### 책속에서나마 휴식을 찾는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낮고 빠른 말로 어찌 누가 끌려갔다는 정보를 나누는 다음에는 곧이어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과시하려는듯 절뚝한 응답패설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대학가는 대학가대로 교양인다운 센스를 가미한 웃음+음담이 개발되고 이른바 ‘참새’ 시리즈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우스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5공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우스개는 당시 통치권자의 모습과 행태를 삽입함으로써 시리즈가 줄곧 이어졌다. 두 사람이 만났든 여럿이 만났든 마치 그런 농담 한마디를 주고 받지 않으면 체체순응세력으로 몰리기라도 할듯 다투어 최근에 입수한 농담정보를 나누는 다음 본론에 들어갔다.

이런 형태의 농담들이 대학가에서 생산되고 방송가에서 유행되면서 세련미와 파급효과를

### 혁명과 퇴폐라는 양극적

문화형태는 어디까지나 중심이 아닌

주변문화의 형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심은 없고 주변문화만

왕성했던 지금까지의 청년문화는

어떤 방향에서 중심문화를 잡아나갈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된다.

중심 없는 주변문화의 극성은

청년문화의 실종인 동시에 우리 모든

문화의 구조적 취약점이다.

높이고 넓히더니 6공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기야는 스포츠신문의 칼럼으로, 연재소설로, ‘개그집’이라는 신조어로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북카치오 91」이니 「캉캉 69」니 「서울 요지경」 등이 신문에 연재되고 책으로 발간되면서 청춘남녀들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 한두권 읽지 않은 젊은이라면, 아니 어린이까지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북카치오 91」의 어느 한 대목을 펼쳐 보자. 미모의 젊은 직장여성이 같은 직장의 기획실장인 사장 아들을 노린다. 여기서 ‘노린다’는 표현은 남성의 재산과 지위를 몸으로 바쳐 노린다는 뜻이다. 꿈 속에서 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무실에서, 기회가 닿기만을 노린다. 결정적인 기회가 포착되자 아낌없이 몸을 바치지만 결과는 의례 상대가 가짜 사장아들이든지 기혼남이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 남가일몽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상황과 상대를 약간씩 바꾸면서 반복된다.

직장으로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 속에 끼여 있는 이 이야기집은 언제나 별거벗은 여체의 교묘한 자세에 화려한 색색으로 칠을 해서 선정도를 자랑한다. 글 또한 그림에 못지 않게 짙은 외설로 가득찬다. (시민단체에서 스포츠지나 음란만화를 규탄하는 소리가 높을 때는 글과 그림의 농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도색잡기류 글과 그림을 일러 산업화시대의 배설문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핑퐁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다 짜증나는 교통체증, 답답한 직장생활, 뻑뻑한 위계질서...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는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형서점의 서가 한 귀퉁이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개그집들.

위로받을 곳은 없고 책 한권 속에서만나마 휴식을 찾으며 혼자서 킁킁 웃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이다.

유신에서 5공을 거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불기 시작한 이 선정적 배설문화를 산업사회 변천의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만 볼 것인지, 또는 무턱대고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 배설문화의 한 장치로서 오히려 그 존재를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뭔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에서 나는 매우 피상적이고 인상적인 지식만으로 배설문학의 변천과정을 적었다. 초기엔 정치적 억압과 엄격히 제한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에 순응하는 자조적 지식인 문인들의 자세가 배설문학을 생산케 되었다고 보았다. 이 입장은 배설문학의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정치적 상황 탓이라는 양해사항이 전제된다.

### 혁명 아니면 퇴폐라는 양극화현상

그러나 권위주의적 억압정치가 일단은 해소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 할만큼 방만한 시대 흐름 속에서 왜 굳이 배설문화, 배설문학이 활개를 쳐야 하는지를 우선 이해하기가 힘들다.

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가 가장 왕성했던 분야가 급진적 혁명사상을 고취하는 이른바 이념서적이었고 이와 비슷한 추세로 새로운 형태의 배설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본다면, 혁명과 퇴폐가 뒤범벅이 되어 민주화 갈등에 혼선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이념문화와 배설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가 모두 젊은 대학생이라는 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혁명 아니면 퇴폐라는 이 양극화현상이 청년문화의 주종을 이룬다면 어떤 의미에서도 환영할 수 없는 우려할 사회병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금년을 고비로 해서 극단적 이념문화가 한풀 꺾이고 있는 추세는 반갑지만 배설문화는 오히려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기미를 느끼게 함은 더욱 우려할 일이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이념문화와 퇴폐문화간의 대립으로 긴장을 이루다가 공산주의 사상이 퇴조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석권하는 양 도취하듯, 이념문화의 퇴조가 곧 퇴폐문화의 존재가치를 더욱 높이고 정당화하는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또다른 우려는 과연 젊은이들이 생산하고 향유할 문화의 선택양식이 혁명과 퇴폐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생겨난다. 혁명과 퇴폐라는 양극적 문화형태는 어디까지나 중심이 아닌 주변문화의 형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심은 없고 주변문화만 왕성했던 지금까지의 청년문화는 어떤 방향에서 중심문화를 잡아나갈지 할 것인가를 이제는 젊은이들 스스로가 찾아나설 때가 되었다고 본다.

중심문화 없는 주변문화의 잘못된 흐름 속에서, 먹는 것 없이 마구 쏟아내지만 하는 이념문화나 퇴폐문화는 정신과 육체에 영양실조를 가져올 똑같은 배설문화일 뿐이다. 중심 없는 주변문화의 극성, 섭취 없는 배설문화의 범람은 청년문화의 실종인 동시에 우리 모든 문화의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